

명의 대여 의혹 확산...허술한 선임 검증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제 '허접' 4대보험 확인도 없는 절차 '도마' 자격 대여·금품수수 의혹 잇따라 사법당국 전면 수사 목소리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자격 및 명의 대여 의혹이 업계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 통신 장애와 해킹, 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술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을 5곳으로 제한한 것도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적 선임을 차단하고 실제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유지관리업체에 자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편법과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격 대여는 물론 허위 서류 제출과 부당한 금품 수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선임 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이다. 유지관리자 선임 과정에서 실제 근무 여부를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대신 업체가 비교적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받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정이 결과적으로 편법과 불법을 차단하기는커녕 제도의 허점을 방치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현행 제도로는 기술자가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지, 다른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름만 빌려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

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법이 의도한 '실질적인 유지관리'는 사라지고 서류상 선임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다. CCTV와 네트워크, 출입통제, 방송설비 등 국민의 안전과 정보보안에 직결되는 분야다. 명의만 빌린 기술자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통신 장애는 물론 해킹과 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자격 대여와 금품 수수 의

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술자와 업체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관계부처 역시 유지관리자 선임 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존 선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도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신뢰를 잃고 국민의 정보보안과 통신 안전도 함께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최준호 기자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전북도가 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난 대응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농촌 빈집 정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주 폭염 중대경보 첫 발효... 전북도 최고수준 대응체계 가동

취약층·농업·건설현장 집중 관리 야외작업·축제 일정 조정 권고 '중단·이동·확인' 행동수칙 홍보

전북도는 4일 도내 최초로 전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 안전대책본부로 중심으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시·군과 관계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을 긴급 전파했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단계의 폭염 대응체계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도는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과 농업·산업현장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홀몸어르신 등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안전확인을 확대하는 한편 노숙인에 대해서도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현장 예찰과 안전확인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낮 시간대 농작업

중지와 충분한 휴식을 적극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활용한 현장 예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긴급조치를 제외한 야외작업은 중지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야외 공연과 축제는 일정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폭염 중대경보 시 도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집중 홍보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동수칙은 ▲모든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중단(Stop)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Move) ▲가죽과 이웃, 차량 내부에 방치된 사람을 확인하는 확인(Check)으로, 폭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행동요령이다.

아울러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현안 점검

물놀이 안전·폭염 대응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농촌빈집 정비

전북도는 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난 대응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농촌빈집 정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폭염·가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도는 읍·면 전담공무원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요원의 근무태세를 수시로 점검하고 드론 예찰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물놀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현장 예찰, 민·관 협업을 통한 재난 대응, 물

절약 홍보 등을 강화해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도 점검했다. 도는 시·군 조례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군별 1개소 이상 주민자치회 운영과 우수사례 발굴,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농촌 공간계획과 빈집 정비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 효과를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전남광주 당심·민심 모두 우세

일반여론·민주당 지지층 선두 정청래와 두 자릿수 격차 기록 민주당 지지층 47.8% 지지 확보

전남광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물론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정청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MBC, 뉴시스광주전남취재본부, 무등일보 등 광주전남 지역언론사 3사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는 지난 3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광주전남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 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민석 후보 42.3%, 정청래 후보 27.7%, 송영길 후보 13.8% 순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1위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4.6%포인트이고 잘 모름은 40.1%다. 또 전당대회에서 반영하는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도 김민석 47.8%, 정청래 30.1%, 송영길 13.3% 순으로 나왔다. 지지정당별 지지율 성향은 김 후보 민주당(47.8%), 정 후보 조국혁신당(31.1%), 송 후보 개혁신당(33.4%)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75.4%, 부정 평가는 19.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68.2%로 가장 높았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1.8%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6.6%,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3.7%, 기타 정당 2.3%, 개혁신당 1.6% 순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ARS(100%)를 통해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하늘아래 땅기질린
지리산허브밸리

「허브밸리를 찾아온 특별한 친구들」

세계 양서·파충류
특별기획전

2026. 7. 25.(토) ~ 8. 30.(일)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전시실
문의 : 063-620-4891
매주 월요일 휴장 (8월 17일 정상 운영, 8월 18일 휴장)

남원시

김제 893억 투자 드론·방산 배터리 거점 구축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
전북도-김제시와 투자협약
2030년까지 단계적 투자
개발~생산 산업생태계 조성

전북도와 김제시는 4일 김제자유무역 지역 내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 제1공장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드론·방산용 배터리 생산거점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해외 유망 기술기업을 유치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는 김제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드론과 방산 분야에 쓰이는 고에너지·고출력 배터리를 개발·양산하고 북미와 유럽 등 세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89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라인 고도화와 전문인력 채용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제 거점은 연간 전극 1.5GWh, 배터리 셀 1GWh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실리콘 음극 기술을 토대로 리튬메탈 배터리와 무음극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플랫폼으로 개발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제는 미래 배터리 기술개발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유치가 단순한 생산 시설 확보를 넘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기능까지 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드론과 방산 영역에서 고성능 배터리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김제에서 연구개발부터 생산, 시험평가,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면 전북의 첨단 제조 역량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미래차와 이차전지, 방산, 바이오, RE100 기반 첨단산업을 축으로 글로벌 투자유치에



<사진=전북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신속한 행정지원,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기존 이차전지 산업에 드론·방산 배터리 분야까지 더해 산업 지평을 넓히고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해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생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세계시장을 향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는 캐나다 NEO Battery Materials Ltd.의 한국법인으로, 실리콘 음극 기반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광복 81주년’ 도청 광장서 나라꽃 무궁화 만나다

18일까지 분화전 개최
자체개발품종 등 68점 전시

전북도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8일까지 도청 광장에서 ‘나라꽃 무궁화 분화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도 산림환경연구원 대아수목원이 직접 관리·육성한 대형 무궁화 분화 60점과 자체 개발 품종인 ‘새년년’ 등 우수 품종 8점을 포함해 총 68점을 선보이는 행사다. 도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 기간에는 무궁화의 역사와

품종, 특징 등을 소개하는 설명자료도 함께 비치해 관람객들이 무궁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끈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나라꽃이다. 도는 이번 전시가 광복 81주년 의미의 되새기고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무궁화 품종 보존과 연구,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하며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 확산과 산림문화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김의겸, 새만금 수상태양광 상생 해법 모색

관계기관·기업 간담회 열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논의
군산·김제·부안 협력체계 강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군산시 소재 지역사무소에서 새만금 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및 사업 관계기업인과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업관계인 등은 군산시민발전, 효성중공업, 금도건설, 디앤아이코퍼레이션, 유진솔라, 태평양이앤씨, 신성이앤씨이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김제시·부안군 3개 지자체가 기업과 함께 추진해 온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은 최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역업체와 사업시행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들과 수차례 소통해 왔다”며 “이번 간담회는 그 결과로 관계기관과 참여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사진=김의겸의원실>

이어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사업인 동시에 새만금이 재생에너지·피지컬AI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라며 “그간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군산·김제·부안 3개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3대 단체가 함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의 시공·기자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기술력·품질을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 기자재 가격과 입찰 과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후속 실무협의의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상생협의를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정부와 함께 ‘새만금 로봏·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을 열고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이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직결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쉬었음 도민’ 취업 지원 출근프로젝트 직무교육

전북도는 4일 2026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출근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일 경험 지원에 나섰다

‘출근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신규사업 ‘2026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의 노동통합 분야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있는 ‘쉬었음 도민’ 등 65명에게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일 경험에 앞서 참여자들의 현장 적응과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사업 이해를 비롯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직무교육을 마친 뒤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배치돼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을 쌓고, 실무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출근프로젝트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직무교육 이후 참여자와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매칭, 일 경험 지원, 취업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한병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여론 반영 보완”

국회 심사서 효과·수용성 점검
국힘 ‘세금폭탄’ 공세 반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사와정에서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가)부동산 세제를 싹겨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취약·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한병도 의원

기간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 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이후 세금폭탄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다.

한 직무대행은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며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수정을 추진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저, 포크 no!

전북농협, 농가인력난 해소 ‘한마음’

고향·농가주부모임 포도수확 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 농심천심 정신 실현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4일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와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임원들을 비롯한

전북본부 임직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봉사자들은 인력난에 시름하는 농가를 방문해 포도 수확 등 영농 작업을 함께하며 농가의 시름을 덜었다.

특히 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심천심 정신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적기 수확과 출하를 위해 농가에 힘을 보탰다.

김성훈 본부장은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가의 노고를 함께 나누며 일손에 힘을 더해진 전북농협 여성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촌에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은 4일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와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전북농협>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3362개 업체 결과 발표 (주)해동씨엔에이 1위

2026년도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됐다.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 (주)해동씨엔에이가 1위를 차지했다.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달 31

일 도내 3362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5490개)에 대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주)해동씨엔에이(대표 양승연) 지반조성·포장공사업(730억 3954만원)이 차지했다.

2위는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급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683억2693만원)이 차지했으며 3위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병중) 철강

구조물공사업(620억71만원), 4위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481억7596만원), 5위 (주)유럽개발(대표 최영진)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391억509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와 수주 난, 대형건설사의 지역상생 외면 등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이 절실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서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그리고 신인도평가액으로 이뤄져 있다.

금번 공시된 2026년 시공능력평가는 지난 1일부터 관련 제증명 발급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가 가능하며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한-멕시코 농기계 기술교류회’ 열어

K-농기계 현지 적용 협력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일 멕시코 텍스코코(Texcoco) 농업기계표준화센터(CENEMA)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소(INIFAP)와 농업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한-멕시코 농기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서 국가연구기관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멕시코 농업 기계 정책과 시장을 파악하며 앞으로의 연구·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추진했다.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과 함께 한 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양국은 이날 기술교류회를 통해 농기계 산업과 연구 현황 공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 4곳은 주요 제품과 핵심 기술을 소개

하고, 멕시코 작목·농지 규모·기후 등 농업 여건에 맞춘 기술 적용과 협력 방향을 발표했다.

멕시코 측에서는 농기계 시험·인증과 농업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와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멕시코 농기계 인증기관(OCIMA)의 알마 벨리아 아얄라 가라이(Alma Velia Ayala Garay) 원장은 농기계 인증제도와 품질관리 체계를, 농업기계표준화센터(CENEMA)의 후안 가브리엘 오초아 비하로(Juan Gabriel Ochoa Bijarro) 연구사는 시험·평가 체계(시스템)와 연구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농업 관련 금융기관 FIRA의 헤수스 알란 엘리손도 플로레스(Jesus Alan Elizondo Flores) 원장은 농기계 보급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과 사례를 설명했다.

발표 뒤 멕시코 농업농촌개발부(SADER) 산티아고 루이 산체스(Santiago Ruy Sanchez) 국제협력조정관과 FIRA 관계자,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멕시코의 농기계 정책과



농촌진흥청은 4일 멕시코 텍스코코 농업기계표준화센터를 방문해 ‘한-멕시코 농기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사진=농진청>

인증 절차, 시장 진입 조건,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구매 지원과 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양국 간 시험·평가 협력과 국내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멕시코는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기계 시험·인증, 농업금융 제도를 갖춰

우리 농기계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농기계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어린이 경제교육 ‘나의 경제 독립 선언’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올해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금융교육 프로그램 ‘나의 경제 독립 선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한 달간 본점 1층 금융에듀테인먼트 JB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복절에는 나라도, 내 지갑도 독립한다’라는 주제로 광복절의 의미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경제교육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건강한 소비와 저축 습관을 다짐하는 ‘경제 독립 선언서’ 작성 및 다양한 금융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북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경제적 독립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와 저축, 계획적인 용돈관리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상호존중 서약식’을 지난 3일 개최했다.

<사진=전북바이오진흥원>

바이오진흥원 ‘상호존중 서약식’ 개최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조직문화 개선 공감대 형성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상호존중 서약식’을 지난 3일 개최했다.

‘상호존중 서약식’은 기관 주요 경영진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서약식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서약식 세부 실천항목으로는 세대와 직급을 넘는 소통 및 업무 목적 공유, 무례한 언행 근절 및 동등한 파트너 대우, 비효율적 관행 개선을 통한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위기 대응, 자율성 존중 및 권한위임을 통한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서약식은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도민과 기업에게 더욱 신뢰받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혁신적인 바이오진흥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필리핀이 사랑한 K-푸드” 동남아 시장 공략

마닐라 국제식품박람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지난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2026 마닐라 국제식품박람회(World Food Expo, 이하 WOFEX)’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WOFEX는 필리핀 최대 규모 B2B 식품박람회로 ‘미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태국’ 등 국가관을 포함해 800여개 식품기업이 참여했다.

對필리핀 상반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1억 4968만 달러로, 베트남을 이어 아세안 지역 내 수출국 2위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라면 3990만달러(전년도 동기 대비 43.1%↑) △과자류 1219만달러(6.5%↑) △음료 1132만달러(9.9%↑)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국관에는 우수 수출업체 12개사가 참가해 수출 주력 품목인 음료, 과자, 김부터 유망 품목으로 주목 받는 냉동 간편식(HMR), 영유아 식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홍보했다.

특히 18년 만에 검역 협상이 타결돼 초도 수출이 예정된 포도 품목은 신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전문 바이어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한국산 포도 우수성 홍보 위한 론칭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aT는 박람회 참가업체 실질적인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필리핀 식품 바이어 7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고 ‘1:1 바이어 매칭 상담회’를 추진했다.

이에 힘입어 총 952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90만달러 규모 MOU 및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관 aT 수출식품이사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푸드 시장 중 하나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이 높은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수출 제품군 확대와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

13일까지 진행 상생협력 가치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국민투표를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이번 국민투표는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후보 추천부터 최종 선정까지 국민 직접 참여 상생협력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투표 대상은 국민추천심사단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으며 최종 후보는 개인 15명과 단체 15개사이다.

개인 부문에는 (가나다순) 기아차, ㈜메타톤, 삼성디스플레이, 엘지이노

텍(주), 이노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리아세븐, 포스코, 한국교통신전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차, 현대모비스(주) 등에서 다년간 상생협력 업무를 담당해 온 인사들이 추천됐다.

단체 부문에는 (가나다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롯데백화점, 신용보증기금, SK인텔릭스, LG D&A, 엘지생활건강, ㈜지엔에스기술, KB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오일뱅크 등이 선정됐다.

투표는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다. 국민은 본인인증 후 개인 15명과 단체 부문 후보 15개사 가운데 각각 3표씩, 총 6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대상자의 상생협력 공적은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공적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13일 24시에 마감된다.

국민투표 결과는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50점이 반영되며 국민추천심사단 평가 점수 50점과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포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맞춤형 자립교육 지원

여름방학 기간 보호 아동 대상
‘자립체험관’ 운영

국네이버스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희망디딤돌 전북센터)은 여름방학 기간 도내 보호(연장)아동 자립 역량 강화 위한 자립체험관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보호 종료를 앞두고거나 보호 연장 중인 아동들이 실제 독립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자립에 필요한 생활 기술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실제 생활환경에서 자립을 연습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아동이 일정 기간 실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독립생활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자립체험 프로그램은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한 8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등으로 구성돼 보호종료 이후 필요한 자립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중심으로 자립체험관 운영과 사례관리, 자립교육, 진로·취업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보호(연장)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군산해경, 연도서 발생한 응급환자 긴급 이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3일 밤 군산시 옥도면 연도에서 발목 부위를 다친 응급환자를 육상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연도에 방문한 40대 남성 관광객 A씨가 펜션 앞 자갈밭에 서 있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뾰족한 돌에 왼쪽 발뒤꿈치부터 발목까지 약 10cm가량 찔려졌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비응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A씨를 들것으로 안전하게 승선시킨 뒤 비응항으로 긴급 이송했다.

군산해경은 오후 11시 34분께 비응항에서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A씨와 보호자를 인계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리 군산해경 경비구조과 수색구조계장은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아간에는 해안가나 자갈밭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소나무 지키기’ 돌입… 6일부터 지상방제

정읍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성황산 등산로 일원 14ha를 두 차례에 걸쳐 방제한다.

방제 구간은 성황산 등산로 약 3.3km다. 소나무 수관에 약제를 직접 살포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성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정읍국유림관리소와 공동방제 협약을 체결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인 유니목의 고압호스를 활용해 약제를 분사할 계획이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차 작업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2차 작업은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 지상방제 시행을 공고했으며, 8월 3일까지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해 방제 일정과 안전수칙을 알렸다.

방제 작업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 시간에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일부 등산로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주요 출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치유농업 교육’운영 여가문화 확산·정서적 안정 기여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물을 활용한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치유농업 기초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치유농업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농업인회관에서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4개 기수로 운영된다.

교육은 기수별 4회(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평일 오후반 및 저녁반과 주말반 등을 편성해 직장인과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수별 30명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원예식물의 종류와 관리기술 △공간별 플랜테리어 △최신 정원 트렌드 및 관리 △꽃을 활용한 생활원에 등을 주제로 이론교육과 함께 디시가든, 테라리움, 압화 액자, 보존화 리스 만들기 등 다양한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식물과 자연을 매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치유농업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김진주 과장은 “치유농업은 식물과 자연을 매개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치유농업을 쉽게 접하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정서회복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햇빛소득마을’ 최다 선정

여산면 4개 협동조합 정부 공모 선정 내달 2차 공모도 기대

익산시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소득 사업의 전국적인 선도 도시로 다시 한번 위상을 굳건히 다졌다.

익산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서 관내 여산면 지역 4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과 함께 농촌 소득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여기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 기금 등 공익 목적으로 배분해 안정적인 농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소가 신청해 86개소가 최종 이름을 올렸다. 전북자치도 내에서는 총 17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익산시가 4개소를 선정하며 도내 시·군 중 가장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모두 여산면 지역으로 △천호조합(학동·신리) △원수조합(연명·독양·상양) △제남조합(상옥·하옥·사월·남산·석교) △태성조합(누항·덕사·노동·현천) 등 총 4개 주민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성공시킨 마을자치연금의 탄탄하게 축적된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익산시는 이미 성당포구마을에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건립해 운영할 만큼,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연금으로 환원하는 형태를 가장 먼저 정착시킨 선도 도시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는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을 통한 계통 연계 등 일부 보완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부 선정 대상이다. 시는 전문가 기술 지도와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집

중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700개 햇빛소득마을 발굴을 목표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이에 맞춰 진행된 2차 공모에도 전국 617개소가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익산시 역시 2차 공모에 4개소를 추가 신청했으며, 오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결과에서도 대거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소득 형태를 넓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천권 농촌활력과장은 “익산시가 먼저 시작한 증명해 온 마을자치연금의 성공 역량이 정부 정책에서도 효과를 낼 것”이라며 “1차 선정된 여산면 4개 마을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내달 2차 공모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일자리·생태환경 ‘두 마리 토끼’

노인일자리 사업 통해 도시경관 개선 앞장

군산시는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생태도센트’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생태환경 보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생태도센트’는 Docent(안내)와 Scent(향기)의 합성어로 ‘향기를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생태환경과 도시경관을 가꾸는 군산시 대표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는 군산시니어클럽, 새만금시니어클럽, 효림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등 4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11개 사업장에서 총 274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계절별 꽃 식재와 제초, 물주기, 생태환경 관리 등을 수행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사진=군산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강습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벼들마편초 등 밀원식물을 식재·관리해 꿀벌과 나비 등 꽃가루반이 곤충의 서식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보랏빛 벼들마편초 군락이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받으며 군산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한 참여 어르신은 “내가 가꾼 꽃을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손주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현장 중심 복지안전망 구축

읍면동 지사협의체 협력체계 강화

익산시가 지역 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곳곳을 살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4일 ‘제6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읍면동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확대하고, 위원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복지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오는 11월 7일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4회 익산시 복

지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한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최영숙 복지정책과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의 최일선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살피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체납관리단 활동 ‘본격화’

세금은 공정하게 위기가구는 따뜻하게

정읍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찾아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와 가정 방문, 납부 독려, 전화 상담, 각종 안

내문 전달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 일률적인 징수보다 상담을 우선할 방침이다.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체납관리단은 징수 활동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도 맡는다. 현장 방문 중 생계 위기가구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안석주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적극행정 또 통했다”

장관 표창 ‘쾌거’

정읍시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점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시는 5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다 기록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운영과 우수사례 창출, 공직문화 개선, 시민 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시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지침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 운영과 사전상담 활성화,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홍보, 실적점수 제도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공직자가 법치·절차적 부담을 덜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했다.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직 전체로 확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행정을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총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자동차와 건설기계 약 15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총지원 규모는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문자 전송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

다. 익산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모든 연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중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조남희 환경정책과장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환경도 지키고 지원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꿀벌응에’ 집중 방제

정읍시는 여름철 급증하는 꿀벌응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6주간 집중 방제를 추진한다.

꿀벌응에류는 꿀벌에 기생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각종 바이러스를 옮기는 대표적인 해충이다. 감염이 확산하면 벌무리의 세력이 약해지고 꿀 생산량이 감소하며, 심한 경우 봉군 전체가 폐사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응에 개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다. 응에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전에 농가

가 방제 시기와 방법을 맞춰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양봉 등록 농가 203곳에 응에 구충약품을 포함한 방제약품과 면역강장제를 공급해 농가의 방제 활동을 지원했다.

집중 방제 기간에는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장 예방조치와 응에 방제제 사용법, 효과적인 방제 방법 등 방역수칙 전반을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봉군을 조성하고 꿀벌응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제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민선 9기 시정운영계획 구체화

민선 9기 익산시가 ‘익산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미래 비전 실행 전략을 구체화한다. 임기 내 성과는 물론 미래 10년을 내다본 시정 로드맵을 체계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익산시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최정호 익산시장 주재로 ‘민선 9기 익산시 미래 비전 시정운영계획 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분야별 핵심 목표 실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향후 시정 운영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국·소·단장이 소관 분야의 정책 여건과 목표, 추진 전략, 핵심 사업,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실행 방안을 공유한다.

주요 논의 분야는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산업 육성 △농생명산업 고도화 △역사·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등 익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추진 일정을 보완하고, 분야별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각 분야의 전략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익산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2차 이전’ 188만평 밀그림

혁신도시 추가부지 검토 완료 정부 이전 로드맵 선제 대응 나서

완주군이 이르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의 기존 혁신도시 내로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188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부지 검토와 기본구상 용역을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정부의 로드맵 발표에 맞춰 기존 클러스터 부지의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완주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추가 부지 확보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기존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의 용지 부족(3필지 34,637㎡)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정책사업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완료했다.

이를 통해 이서면 갈산리와 반교리 등 기존 혁신도시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무려 6,230,000㎡(188.4만 평)에 달하는 면적을 추가 이전 대상 부지로 철저히 검토했으며, 묘포장 등 활용 가능한 주변 부지를 중심으로 단기 및 중장기 확장 계획까지 수립해 둔 상태다.

정부의 공실 건물 및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다. 최근 혁신도시내 입주가능 건물 및 활용가능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부의 다각적인 유치 방식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4개 국립연구기관을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공간정보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이미 집적돼 국가 농생명·식품 및 공간정보 연구거점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상태다.

특히,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지정 전략에 긴밀히 공조해 농협중

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각종 공제회 등 유치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완주군에서는 전략특화 산업인 농생명·식품, 에너지·탄소중립, 공간정보,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두고 기능집적형 공공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유치 기관으로는 농생명·식품 분야의 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안전정보원, 에너지·탄소중립 분야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환경공단, 공간정보 분야의 공간정보산업진흥원·국토지리정보원, 바이오·첨단연구 분야의 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존 혁신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대규모 부지 확보와 확고한 타당성 논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154kV 변전소 신설 정부 건의

최영일 군수 기후부 장관 면담 “변전소 용량 포화, 신설 시급”

최영일 순창군수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54kV 변전소 신설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는 지난 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순창군의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154kV 변전소 신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그린에너지 정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순창군의 기존 154kV 변전소는 전력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사진=순창군>

받고도 계통 연결을 기다리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역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전력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54kV 변전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

원을 요청했다.

최영일 군수는 “정부의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에 농촌지역까지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력을 원활하게 송·배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선행돼야 한다”며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성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54kV 변전소 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전국 1위’

98.5% 기초지자체 1위 달성 상위법 개정 신속 반영 성과

순창군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을 기록하며 체계적인 법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법제처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분기 필수 자치법규 현황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4%로 집계됐다. 순창군은 이보다 4.1%포인트 높은 98.5%의 점수를 얻어 경남 통영시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등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제정이

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자치행정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시에 마련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순창군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행정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국 1위 달성 역시 이러한 체계적인 법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춘 자활기금 관리 조항을 수정하는 등 법적 적합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상위법령 불분명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신속히 처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칠월칠석 맞아 광한루원 체험행사 운영

오작교·견우직녀 현대 재해석 별자리 관측·달빛 버스킹 등

남원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전통 세시풍속인 칠월칠석을 주제로 한 ‘세시풍속 놀고·있다.칠월칠석’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한루원의 대표 문화자산인 오작교와 견우·직녀 설화를 활용해 전통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문화체험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 기간에는 사람과 소망을 기원하는 사랑의 소원 나무와 합격의 소원 나무를 비롯해 사랑이 이어지는 오작교 건너기, 견우·직녀 별자리 관측 및 소원 빌기 등 칠월칠석의 의미를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리플러스사업단의 달빛 버스킹, 남원관광협회의 견우·직녀 퍼레이드 행사, 칠월칠석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천문과학관,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협력해 천체 망원경으로

견우성과 직녀성을 관측하고 전문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칠월칠석의 유래와 전통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 세시풍속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광한루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바탕으로 제2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성조 관광시설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QR로 모기 서식지 신고하세요”

GPS 연동 위치정보 자동 입력 신고부터 방제까지 진행 확인

남원시보건소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QR코드 모기 서식지 신고제’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내 동 지역 거주 시민 및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읍면 지역과 사유지를 제외한 공원, 하수구, 웅덩이 등 모기 유충 및 성충이 밀집된 지역을 발견할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주요 특징은 정확성과 편의성이 다. 신고 시 스마트폰의 GPS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돼 신고자가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으며, 방제 기동반은 정확한 발원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방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신고 절차는 △모기 서식지 발견 시 QR코드 스캔 △개인정보 동의 및 민원 내용 작성(GPS 자동 입력) △방제 기동반 확인 및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추후 QR코드를 다시 스캔하면 분인이 신고한 방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화로만 접수하던 모기 관련 민원을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소통 채널 확대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 여름철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여름철 다슬기 채취 안전사고 주의 당부

구멍조끼 착용 등 안전 강조 야간·나홀로 채취 자제 권고

순창군은 여름철 하천과 계곡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과 피서객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계곡과 강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다슬기 채취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슬기를 잡는데 집중하다 보면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급류에 휩쓸리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매년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익사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다슬기 채취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멍조끼 착용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위험지역 출입 자제 △야간 및 나홀로 채취 금지 △음주 후 물에 들어가지 않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물속으로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에 비치된 구명환이나 튜브, 긴 막대 등 안전장비를 활용해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민간 플랫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 확대

위기브 운영사 공감만세 협약 홍보·마케팅 강화 참여 활성화

남원시는 4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 플랫폼 ‘위기브(WEGIVE)’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취공감만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공공플랫폼 중심의 기부 환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플랫폼의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지원과 기부자 편의성 증진으로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농·축산



<사진=남원시>

물과 우수 상품의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과 함께 남원시는 협약식 이후 답례품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답례품 운영전략, 우수사례 공유 등 답례품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삼례문화예술촌, 전통소목기법 목가구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 서 지역 작가 이명택의 개인전 ‘사유(思惟)의 시간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목가구를 통해 전통 소목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다.

전시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소병진 선생에게 전수받은 전통 소목 기법과 정신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공개된다.

절제된 선과 정교한 짜맞춤, 나무 본연의 결을 살려낸 목가구들은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수상과 전승공예품 인증 등을 통해 예술성을 인정받

은 작품들이다.

이명택 국가무형유산 소목장 이수자는 “전통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일인 만큼, 관람객들이 작품에 스며든 시간의 결을 따라 장인의 사유를 마주하고 전통의 깊이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전통의 맥을 묵묵히 이어가는 장인의 숭고한 여정을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조명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시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반납 땀 포인트 현금 환급

순창군이 주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고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투명페트병 AI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된 AI 무인회수기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인식·분류한 뒤 압축·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1개를 반납할 때마다 10포인트(10원 상당)가 적립되며, 1인당 하루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무인회수기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다만 색상이 있는 페트병이나 오염된 페트병, 통조림 캔 등은 투입이 제한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만 회수 대상이다.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의류와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활용료로 활용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와푸죽제 ‘등용문 키템’ 선포 특산물 향어 모티브 친환경 제작

완주군이 제14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앞두고 축제를 대표할 새로운 공식 상품(굿즈)인 ‘등용문 향어 키템’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등용문 향어 키템’은 완주군의 대표 특산 수산물인 향어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용이 된다는 고사성어 ‘등용문(登龍門)’의 의미를 담아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등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람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완주군은 전국 향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로, 향어는 축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물고기 잡기와 화덕구이 체험에 활용되는 핵심 상징 콘텐츠다.

이번 상품은 완주군 소재 업사이클링 로컬브랜드 (취조아지구(대표 이선미))와 협업해 친환경 비건 점토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지향하는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의 가치를 살렸다.

군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을 맞아 완주군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수험생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일까지 참여한 응모자 중 10명을 추첨해 ‘등용문 향어 키템’을 증정할 예정이다.

키템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현장 굿즈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 폭염대비 열음생수 나눔 캠페인

사단법인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기성)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일 고산농협 앞에서 ‘폭염대비 열음생수 나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야외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케이워터기술 전주시업소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주민들에게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이기성 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폭염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대상 2박 3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무주 산골 청소년들이 오는 6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기장에서 바다 청소년들과 만나 우정을 다진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45회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교류 수련 활동’은 영호남 청소년 화합을 위해 무주군과 기장군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두 지역 초등학교(4~6학년)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등 총 70명(청소년 60명, 인솔자 10명)이 참가했다.

무주와 기장군 청소년들은 4일 기장문화예절학교 입교를 시작으로, 6일까지 △울주해안레포츠크센터에서의 패들 보트·생존수영·모터보트 등 해양 레포츠 체험, △씨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 견학,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체험 및 퍼레이드 관람, △정관청소년센터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무주지역 학생들은 “기장에도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좋고 친구들이 무주에 오면 반디랜드, 태권도원, 태권비어랜드 등 여기저기 소개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임실군 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어울림 문화교실, 관촌 꿈나무 교실, 우리 마을 신나는 문화 놀이터 프로그램, 마을로 가는 청춘 꾸러미, 찾아가는 마을학교(원예교실), 행복매니저 배움학교(문화해설사 양성), 사회적 경제 행복 학교(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8월 1일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일하게 될 신규 사무장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위원들은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 일정 등을 잘 협의하여 폭염과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힐링과 문화복지 향상에 구심점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심우진 위원장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남·여 청소년 대상 HPV 백신접종 권장

진안군보건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90% 이상, 생식기 사마귀의 89% 이상, 항문 상피 내 종양의 78% 이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여성 청소년(2008~2014년생)과 저소득층(1999~2007년생)에게만 지원되던 HPV 국가예방접종이 12세(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자는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 받으며, 예방접종 권장 시기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HPV 백신(HPV 4가)을 접종받을 수 있으며 진안군 위탁의료기관은 △진안군의료원, △우리가정의학과원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농업·건설·생활 현장 순회 예방수칙 준수 당부 폭염 예방꾸러미 배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물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현장 지도에 힘을 쏟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직을 비롯한 읍면 상담소장, 온열질환 예방 요원 등 34명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읍면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과 넥쿨러, 쿨도시, 쿨타올 등으로 구성된 폭염 예방꾸러미를 배부하며 폭염특보 시 농업인들이 꼭 지켜야 할 기본 수칙부터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공유하고 있다.

사과 일소 피해 방지를 위한 칼집제 살포, 미세 살수, 햇빛 차단망 설치, 고



온기 고추 수정 불량, 낙과, 석회 결핍 예방 안내 등 폭염으로 예상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도 병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2월부터 12개 마을 4백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했으며 농업인단체협의회 핵심 리더 대상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도 완료했다.

이 외에도 각 읍면에 온열질환 예방현수막을 걸고 폭염 예방키트 및 홍보전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 관련 각종 행사에서도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를 벌이고 있다. 6개 읍면 58개 마을에서는 농작물 생육 관리 홍보 및 지도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장수, 폭염 취약현장 점검

한득수 임실군수 “군민 안전 최우선”

애로사항 직접 청취

한득수 임실군수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폭염 대응 현장점검에 나서며 군민 안전 최우선 행정에 발 벗고 나섰다.

한 군수는 지난 3일 임실읍 상성 어머니경로당과 오수면 후리경로당, 양계·양돈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폭염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임실군 전역에 폭염경보가 연이어 발효되고, 당분간 35℃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산 피해예방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군수는 먼저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 정상 가동여부와 시설 운영상황,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섬심하게 살피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안전한 여름나기를 당부했다.

이어 폭염에 취약한 양계·양돈농가를 방문해 축사 내부 온도관리와 환기시설 운영, 급수관리 등 폭염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폭염 대책기간인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 체제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폭염 대비 건강관리 당부

폭염 예방수칙 이행 점검

장수군은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계층 가정, 야외작업 현장 등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정우 장수부군수가 지역 경로당과 폭염 돌봄 가정을 방문해 폭염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군수는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기 가동 상태와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폭염

이 지속되는 동안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상자별 보호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야외작업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식수 제공, 기온을 고려한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선정

현대로템 투자유치 등 5건

무주군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제안(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제안(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별은 조직 내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제안(공무원)은 총 5건으로, 실제 현대로템 투자를 성사시킨 △‘무주에서 우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현대로템㈜ 투자유치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중심 도시 도약’과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확정’ 건으로 무주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꼽혔다.

또한 △‘인사 평가 전산화 및 가산점 확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건은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무주안성낙화놀이 유료 관광 상품화 성공’은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해 인정받았다.

△‘전문 의료 확충으로 의료공백 해소 및 군민 건강권 확보’ 건은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로는 ‘전국 최초! 전 군민 대상 무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한 기획조정실이 선정됐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2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참가 업체 모집

8월 7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장수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부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간식 부스 19개 △공방 체험 부스 9개 △푸드트럭 4개 △포장마차 2개 △홍보부스 10개 등 총 44개 부스이며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축제의 모든 부스 운영자는 장수군 관내 업체와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모

집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업체와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간식 부스는 식음료 취급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또는 행사 기간 중 임시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를 보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임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보부스는 각종 정책 및 사책 홍보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공공성을 갖춘 홍보부스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공방 체험 부스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마을 만들기 사업장과 개인 운영자, 공예 및 수공예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축제 추진위 관계자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 다양한 업체와 기관, 단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한다면 방문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 운영

주제도서와 연계

피지컬 AI·SW 체험

임실군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되는 피지컬AI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제도서와 연계한 피지컬 AI·SW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디지털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방학 기간 중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름 독서교실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임실군립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총 3회에 걸쳐 학년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8월 5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춰 서로 다른 첨단 로봇을 활용하는 체험교실로 △1~2학년 대상 ‘코딩 탐정로봇, 모비코’ △3~4학년 대상 ‘AI 반러로봇, 파이보즈’ △5~6학년 대상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카미봇아이’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도서관 예절교육 및 사서와 함께하는 주제도서 읽기를 시작으로, 로봇 코딩과 피지컬 AI·SW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민관 관계자 60여명 참여

장수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민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략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4년간 장수군의 지역사회보장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6기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주민 욕

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수립한 군민과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열린 전략수립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분임별 토의를 통해 장수군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제6기 중점과제와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장수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와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고, 민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은 지난달 31일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주재로 다문화결혼이주여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임실군>

임실군, 다문화결혼이주여성과 간담회 개최

임실군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 출신 다문화결혼이주여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주재로 다문화결혼이주여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듣고, 이용자 중심의 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사업과 결혼이주여성 진정방문 지원사업의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언어·문화 적응, 자녀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가족센터에 바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실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사업 운영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진안군은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농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진안군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최근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진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공모 분야는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농촌융복합, 농업서비스 등으로 농업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

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및 이메일(coway3179@korea.kr)로 접수하고, 이후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월 7일 발표심사(본선경진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진안군수상이 수여되며, 농업인육성팀 보조사업 신청 시 평가기준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실제로 역대 경진대회 수상자의 아이디어들 중 진안홍삼을 활용한 육포 제품개발 지원, 부위별 온도측정 딸기 육묘장 조성 등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지역 청년농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시, 10가족 '소통 여행' 사춘기 자녀와 마음 잇다

정읍시가 상담 이용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1박 2일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완주군 힐조타운에서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쉽, 마음을 잇다'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상담 이용 청소년을 포함한 10가족 31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과 부모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가족들은 전문가가 진행한 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파크골프, 족욕, 숲 체험, 수소 치유 요법(수소테라피) 명상, 물놀이 등을 함께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추어탕, 남원 사매면 경로당에 300만원 상당 추어탕 기부

남원시 사매면행정복지센터는 남원시 왕정동 소재 정읍추어탕(대표 이강안)이 임추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레토르트 추어탕 330개(시가 3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추어탕은 사매면 20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으로, 최근 식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부식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의 대표 추어탕 맛집으로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정읍추어탕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기부 역시 "임추를 맞아 어르신들께서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부부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강안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부안군, 다문화가족에 고향나들이 항공권 전달

부안 3개 로타리클럽과 함께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응원

부안군은 지난 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지역 3개 로타리클럽과 함께 2026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항공권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부담과 장거리 이동 등의 어려움으로 고향방문이 쉽지 않은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신상수 기자

이날 행사에는 방상윤 부안군 부군수와 강예순 해당화로타리클럽 회장을 비롯해 국제로타리 3670지구 관계자, 서해·해당화·부안로타리클럽 회원, 고향나들이 사업 대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올해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은 베트남·캄보디아·중국·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가족 11가정 34명이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여행자보험, 공항 왕복 교통비, 현지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올해 전달식은 해당화로타리클럽이 주관했다.



부안군은 지난 3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지역 3개 로타리클럽과 함께 2026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항공권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고창군산림조합, 추석맞이 벌초도우미 서비스 실시

타지 거주자 위한 맞춤 지원

고창군산림조합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벌초도우미서비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바쁜 일상이나 거리가 먼 타지 거주자 등으로 벌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벌초도우미 서비스는 기본 120,000원부터 시작하며 벌초면적이나 이동거리등을 반영하여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단 조합원 10%할인과 3년 이상 단골고객 5%할인이 추가 적용되어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김영건 조합장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담아 안전하고 정성스레 묘지를 관리해 드릴 것이며 군민을 포함한 고향을 찾는 출향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부안군 산림조합, 고향사랑 상호기부

김제시는 4일 김제산림조합과 부안군산림조합의 임직원들이 상호 간 교차 기부를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김제산림조합과 부안군산림조합 소속 임직원 각각 20명씩, 총 40명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

양 조합은 총 200만 원의 기부금을 상대 지역에 전달하며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과시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 내 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두 조합은, 지역 사회 나눔 가치를 확산하고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상호 기부를 기획했다.

단순한 성금 전달을 넘어, 인접 지역 산림조합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함께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제=은봉기 기자



OCI(주) 군산공장, 취약계층에 선풍기 후원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는 4일, OCI(주) 군산공장이 관내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50대(환가액 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선풍기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진로 OCI(주) 상무는 "폭염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OCI(주) 군산공장은 3년째 지속해 온 선풍기 후원과 더불어 정기적인 물품 기탁과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우석대 의료봉사동아리 완주 운주면서 봉사 활동

완주군 운주면 운주교회에서 우석대학교 기독교 의료봉사동아리 씨엠에프(CMF)가 지난 3일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의료봉사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우석대학교 교수와 한의학 전문의, 한의학과·간호학과 학생 등 35명이 참여해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침 치료와 부항, 건강진단, 의약 상담 등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무더위를 식히며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주사랑봉사단과 운주적십자회가 팔빙수를 제공하는 다과 봉사도 함께 진행해 현장에 시원함을 더하고 있다.

의료봉사를 받은 한 주민은 "평소 병원을 자주 찾기가 어려웠는데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학생들과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메가약국' 착한가게 가입으로 나눔 실천

익산시 영동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메가약국'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실천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모인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사용된다.

메가약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동참하게 됐다.

최재승 메가약국 대표는 "주민들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마음 건강까지 돌보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것!

손 소독제



전자기기와 운동화



안경과 선글라스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一事一言〉



명의만 존재하는 기술자, 행정 방임이 키운 통신 안전의 구멍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거대한 빌딩의 지하 통신실. 수십 개의 네트워크 케이블과 보안 장비, CCTV 및 출입통제 시스템이 켜 없이 꺾이고 이어지며 건물의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건축물에서 정보통신 설비는 단순한 편의 장치라 아니다. 비상시 화재 알림부터 보안, 데이터 통신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법의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자격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책임 있게 설비를 점검·관리함으로써 통신 장애와 비상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어떠한가. 법제도의 높은 이상이 무색하게도, 편법과 행정 사각지대가 횡행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 폭탄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충격적이다.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거나 정기 점검을 수행하기는커녕, 이름만 빌려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증명하는 '명의 대여'와 '유령 관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행정 당국의 태도다. 현행 행정 관행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실제 근로·재직 상태를 증명하는 엄밀한 실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업체가 제출한 '재직증명서' 한 장에 의존해 실제 고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이러한 형식주의적 행정은, 엄연히 불법 명의 대여와 편법을 행정이 사실상 방조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에 다름없다.

여기에 지자체 간 '칸막이 행정'까지 더해져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 기술자 1인당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관리 대상은 최대 5곳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A 시에서 이미 5곳의 선임 용량을 채운 기술자가 B 구, C 군으로 이동해 추가로 5곳, 10곳의 건물을 중복 선임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통합 전산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실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서류상 기술자만 올려놓은 편법 업체들은 저가 '덤핑 수수료'로 시장을 어지럽힌다. 반면, 정당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규정대로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성실한 전문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설 자리를 잃고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자가 피해를 보고, 편법을 저지르는 자가 이득을 취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작 비상사태나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달려올 실질적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안전의 부실로 직결된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행정의 방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관리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제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

첫째, 재직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재직증명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실제 고용

관계와 근로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가짜 재직 증명으로 선임을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 처분과 법적 책임을 물어 무책임한 행정 방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둘째, 전국 단위의 '통합 선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전문 협회,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 DB를 신설해야 한다. 기술자 한 명이 전국 어디서든 5곳을 초과하여 중복 선임 등록을 시도할 경우,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실시간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칸막이 행정의 허점을 막을 수 있다.

셋째, 현장 실태조사와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서류 신고접수 수준에 머무르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불시 점검을 정례화해야 한다. 명의대여 및 부실 점검 적발 시 자격 정지, 영업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명의장사 업체가 시장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도록 철퇴를 내려야 한다.

제도는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법률을 명시해 놓아도 현장에서 껌데기만 남은 채 작동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유명 기술자의 이름을 지우고, 엄정한 실태 검증을 통해 진짜 전문가가 현장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정보통신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 행정이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기본이다.

만약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혀야 한다. 얼음주머니나 젖은 수건으로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냉각시키고, 의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그러나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에서는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기후변화로 폭염은 해마다 더 강하고 길어지고 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폭염 행동요령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살피는 배려가 여름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서준

ㅣ 독자투고 ㅣ

폭염, 방심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 해야 할 시점이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 저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응급질환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도 있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작업하거나 활동해야 한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활용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량 안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혼자 두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가족과 이웃의 관심도 필요하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직접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사설

맛이 관광을 만든다. 김제 ‘푸드 콘테스트’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축제의 경쟁력은 더 이상 화려한 공연이나 대규모 행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관광객들은 지역만의 특별한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축제를 찾는다. 그런 점에서 김제시가 추진하는 '맛보자고! 푸드 콘테스트'는 매우 참신하고 의미 있는 시도다.

이번 콘테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축제 참가자들이 직접 음식을 맛보고 자신의 선택으로 우수 업소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의 진정한 평가는 결국 소비자가 하는 것이며, 관광객의 만족도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을 관광 콘텐츠와 연결하려는 발상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맛있는 음식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음식점뿐 아니라 숙박업, 전통시장, 카페, 지역 농특산물 판매까지 소비가 확대되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축제를 즐기던 관광객들이 “김제는 맛있는 도시”라는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홍보보다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축제 기간에만 반짝 운영되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소비자들의 평가를 꾸준히 수집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업소를 선정해 일정 기간 인증한 뒤, 다시 새로운 평가를 통해 재선정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업소들은 맛과 위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일정 기간마다 우수 업소를 새롭게 발표하는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선의의 경쟁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기존 선정 업소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업소는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건강한 경쟁은 결국 지역 외식업 전체의 수준을 높이고 김제를 대표하는 미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축제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맛은 오래 기억된다. 관광객이 다시 김제를 찾게 만드는 힘도 결국 음식에서 나온다. 이번 '푸드 콘테스트'가 단순한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김제만의 맛을 브랜드로 키워내는 꾸준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더해질 때, 이번 시도는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시

선암사 / 정 호 승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꾸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 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1979년 첫시집 '술품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2회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시집 '별들은 따뜻하다'와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장편소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91-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8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시민 먹거리 안전 지킨다!



소비자 위한 배달·급식 위생 실태점검 실시 계절별 특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총력

최근 배달음식 시장의 성장과 학교·기업·사회복지 시설 등 집단급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김제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식품안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배달음식 이용 증가, 위생관리 중요성 확대

배달음식은 소비자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며 일상 속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조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배달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배달앱 등록 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상태와 조리시설 청결도, 종사자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냉장·냉동 식재료의 적정 보관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위생상태 등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실천 여부도 꼼꼼히 살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 집단급식소, 체계적 위생관리 요구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구내식당 등은 다수의 이용자가 동일한 음식을 섭취하는 만큼 식중독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의 위생 사고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 과정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재료 입고 시 보관 온도 및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조리 전·후 식품을 구분 보관하는 등 교차오염 방지에 힘쓰고 있다.

김제시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조리시설 청결도,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순회 방문을 실시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계절별 특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

시는 계절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식재료 변질 우려가 큰 만큼 냉장·냉동시설 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지역 축제 기간에는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와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 향상과 더불어 김제시 자체적 식중독 현장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소비자 신뢰 높이는 위생문화 정착

소비자들의 위생 의식 역시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식품안전업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제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소에 대해 식품안전업소 지정, 남은 음식물 줄이기를 통한 음식문화개선 실천 업소 지정,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기구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조리도구 연마 사업 등을 통해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중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먹거리 안전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이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배달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공급업자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